

01 동양고전에서 인생을 만나다

■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 [논어] 공자 신정근

• 공자와 맹자는 국가가 공정한 기능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지 군주 개인에 의해서 국가가 사적인 목적에 응용되거나 타락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孔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 논어는 가속 없는 인생의 무료함, 감속 없는 위험함, 이 무료함과 위험함을 줄여 주는 가속과 감속의 균형 잡힌 운전을 통해서, 흥미와 즐거움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 성공한 사람이 천재적인 직관에 의해서 쓴 책은 재기 발랄하지만 깊은 맛이 배어들지 않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오래된 패배, 거둬진 실패, 삭이고 삭여서 분노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담담한 상황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과의 연대에 대한 꿈,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쟁보다는 평화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동아시아를 형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공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시대를 바꾼 고민의 힘,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 박석무

• 牧民心書 48권 16책 1편: 赴任, 2편: 律己, 3편: 奉公, 4편: 愛民

• 다산은 관이 밝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몸을 사리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중들의 저항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셈입니다.

• 당대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0년, 2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經世遺表와 牧民心書입니다. [경세유표]는 관제개혁과 부국강병을 논한 책인데, 임금이나 나라에 유언으로 남겨서라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목민심서]역시 자신이 백성을 돌봐주고 보살펴 주고 싶지만, 현재 본인은 귀양살이를 하니 뒷날 누가 이것을 사용하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 향기로운 삶, 의미있는 삶, 『聖學十圖』 퇴계 이황, 이광호

• 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

• 퇴계가 고민한 ‘이’는 대상적 사물의 이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지라고 말할 때 도리에 속하는 ‘이’입니다. 퇴계는 바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나, 어떻게 사는 것이 도리냐 하는 질문을 12세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정착시킵니다.

• 퇴계는 49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기 위해 사직서를 세 번이나 제출해도 감사가 허락하지 않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 직급이 2등급이나 강등됩니다. 물러나 자기 삶을 돌보며 늘 성찰하고 자기반성을 쌓아가는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 聖學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인간완성의 학문입니다. 성학이라는 자기완성의 학문이 대상 인식의 학문을 뒷받침해 줄 때 인류 사회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학과 과학이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는 학문을 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적 자연관 및 인간관과 서구적 자연관 및 인간관이 함께 이해됨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이 열릴 수 있습니다. 퇴계의 성학은 미래의 향기로운 삶을 여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스펙보다 더 중요한 자기발견, 『擊蒙要訣』 이이, 한형조

• 불교에서는 사람이 六道輪回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의 윤회 인생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삶의 수준을 가리킵니다. 六道(지옥,아귀,수라,축생,인간,천상)라는 게 결국은 인간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 “내려올 때 보았네/올라갈 때 못본/그 꽃” -고은
내려갈 때 보면 그동안 올라올 때 봤던 것과는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고 나면 친구가 더 소중하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 여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동안 열심히 돈 벌고 가족 부양하겠다고 뛰어온 것과 또 다른 삶의 지평,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 행복이 중심 화두에 놓이면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가치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성장 제일주의로 가다 보면 지구적 환경, 자원 문제, 기후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조금 세상을 달리 보고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구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조선 시대 어느 시골 선비가 북경 시내 변화가에 갔습니다. 휘황한 불빛 아래에서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곤 순간 낮이 나갔습니다.

선비: 내 마음 붉은 화장 따라 가버리고, 껍데기만, 쓸쓸히 문에 기대어 섰네,

여자: 짐이 무겁다고 나귀가 성질을 부리는데, 사람 하나가 더 올라타서 그랬나보군.

• 우리 일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용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선 사랑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 공자에게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子絶四”라 합니다.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意’입니다. 사적인 욕망이나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必입니다. 의지로 미친 듯이 돌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固’입니다. 반복되는 경향이나 패턴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我’, 즉 자아나 성격이 없었습니다.

•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타자를 지배하고 타자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자각의 결과로 일어나는 왜곡의 메커니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 자기 경험 체계 안에서 자기 의지, 자기 방어 속에서 계속 점점 더 경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리는 속된 말로 ‘꼰대’라 부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 이웃과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막힌 사람을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 불교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貪瞋癡 三毒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만 가르칩니다. 진정한 열반, 해탈, 평화와 안정은 자기 내부의 적을 깨부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애깁니다. 불교의 성자를 ‘羅漢’이라 부릅니다. 나한은 자기 속의 적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다는 거죠.

